

人蔘의 효능과 응용



최호영 교수
경희대학교 한의과

1. 개설

人蔘은 두릅나무과 Araliaceae에 속한 다년생초본인 인삼 Panax ginseng Meyer의 뿌리를 건조한 것이다. 인삼의 Panax ginseng Meyer라는學名은 1843년 소련의 Meyer가命名한 것이며, 屬名인 Panax는 그리스 어원으로 모든 것이라는 뜻의 Pan과 藥으로 사용한다는 뜻의 Axos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말이다.

人蔘은 <神農本草經>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人蓐, 鬼蓋 등의 異名이 있고, 上品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 뿌리의 형상이 사람과 같아서 얻은 이름이다. 특히 국산의 경우 參이라고 하지 않고, 蔘자를 사용하는 것은 고래로부터 국산이 중국산에 비하여 우수하기 때문에 특별히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한다고 한다.

한의학에서는 性は微溫하고, 味는甘微苦한 藥性으로, 脾 肺 心經

에 歸經한다. 大補元氣 固脫生津 安神의 효능으로 勞傷虛損 食少 倦怠 反胃吐食 大便滑泄 虛咳喘促 自汗暴脫 驚悸健忘 眩暈頭痛 陽痿 頻尿 消渴 婦女崩漏 小兒慢驚 久虛不復 一切氣血津液不足에 상용되는 한약재이다. 臨床에서 주로 脾肺氣虛 혹은 氣血兩虛之症에 중요하게 사용된다. 또한 大病, 久病 後에 元氣가 大傷한 때에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元氣虛極欲脫, 脈微欲絕之候에 있어서 人蔘은 필수이다. 그 외에 熱病氣津兩傷 및 消渴이나, 氣血虛弱하여 나타난 心神不安, 驚悸失眠, 健忘 등의 증상에도 역시 常用한다. 古人이 말하길 “虛勞內傷을 치료하는 첫 번째 要藥이다.” (爲治虛勞內傷 第一要藥)이라 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산지는 중부지방인 경기도의 강화 포천과 충청남북도의 금산 옥천 영동 및 경상북도의 풍기 영주 등에서 재배하며, 중국과

일본에서도 일부 재배하고 있다.

人蔘은 주로 한국과 중국의 동북 지방에서 생산되는데, 중국이 전세계 人蔘 생산량 중 약 70%를 차지하고, 국제시장 유통량 중 약 65%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시장에서의 人蔘 가격은 우리나라 人蔘 가격보다 몇 배나 낮게 유통되고 있다. (國家中醫藥管理局, 1995)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人蔘의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이며, 국가에서 오랫동안 관리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에서는 국제시장에서 자국산 人蔘의 품질을 인정받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人蔘은 야생으로 오래된 것을 효능이 아주 좋은 上品으로 여기며, 재배한 것은 그 보다 못한 것으로 생각되어 지고 있다.

그 재배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조선의 영정조 때로부터 보아야 한다는 설

이 있고, 그 이전인 삼국시대부터 재배하였다는 설도 있다.

중국에서는 清代中期 이전의 人蔘은 모두 야생이었다. 그 후 자원이 계속 파괴되자 野生人蔘은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宋代〈冊府元龜〉에는 渤海時期에 人蔘을 珍品으로 記載하고 있다. 이 시기에 人蔘은 渤海 귀족 자신의 사용하거나 예품으로 바치는 데에 사용되었다. 다만 채취량이 많지 않아 야생자원이 비교적 풍부하였다. 그 후 金 明代를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人蔘을 대단히 중요시하게 되었으나, 野生人蔘에 대한 보호는 없었다. 그러므로 자원이 점점 감소되면서, 清代以後에는 人蔘의 채취를 관리하게 되었다. 淸政府는 의식적으로 野生人蔘 자원의 채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실시하였고, 이것이 중국 한약재 보호 관리의 시작이 되었다. 清代는 野生人蔘 자원 관리가 가장 엄격한 시기로 정부는 개인이 人蔘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人蔘의 값이 높으므로 그 이익을 얻기 위하여, 人蔘을 채취하는 일은 금지시켜도 그치지 않았다. 清代末期에 금지가 풀리면서 野生人蔘 자원은 더욱 고갈되었고, 民國後期에 野生人蔘은 이미 드물게 되었다. 新中國이 건립된 후에 야생약재 보호조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생태평형의 파괴로 野生人蔘 자원은 아직 회복되지 않고, 현재 野生人蔘은 보기가 매우 어렵다.(孟慶瑛, 1996)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藏腦 山養參 등의 이름으로 野生人蔘의 씨앗을 깊은 산속에 뿌려 재배한 후에 아주 고가로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지역 특산으로 그 재배를 장려하고 있기도 하다. 또 일부에서는 중국에서 채취된 野生人蔘을 국내에서 채취된 山參으로 둔갑시켜 아주 고가로 판매하기도 한다고 한다.

현대의학이 유전자치료로 대변되는 맞춤의학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지금에도, 人蔘의 효능에 대한 인식은 결국 한의학의 많은 임상 경험을 통하여 인식되고 인정된 범위에서 정리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人蔘의 응용 역사를 통하여 그 효능에 대한 인식의 변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 결과로서 현재 한의학에서의 人蔘의 임상 응용 방법을 최근 서적을 통하여 정리하였다.

2. 한의학에서 人蔘의 응용 역사

기원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현재는 두릅나무과 Araliaceae 다년생 초본식물인 인삼의 뿌리를 기원으로 쓴다. 人蔘의 代用品이나 僞品으로 유통되는 것으로는 만삼 *Codonopsis pilosula* (Fr.) Nannf.의 뿌리를 건조한 黨參과 개별꽃 *Pseudostellaria heterophylla*의 뿌리를 건조한 太子參, 도라지 *Platycodon grandiflorum*의 뿌리

를 건조한 桔梗 등이 있다.

1) 漢代

漢代에서부터 人蔘이 임상에서 상용되었으며, 의사들은 이미 人蔘에 대해 비교적 깊은 이해가 있었다. 〈神農本草經〉에서는 “味甘微寒, 主補五臟, 安精神, 安魂魄, 止驚悸, 除邪氣, 明目, 開心, 益智. 久服輕身延年”이라 하였다.

〈傷寒論〉과 〈金?要略〉에서 人蔘이 사용된 처방은 36개에 달한다.

〈傷寒論〉에서는, 우선 生津止渴하는 데에 쓰였는데, 白虎加入蔘湯 같은 것으로 白虎湯證에 津液이 대상하여 口渴이 비교적 심하고, 氣陰兩傷, 口舌乾燥者에 적용하였다. 口渴은 熱傷氣津한 것으로 津傷하여 渴하고 氣傷하여 津液이 不布하므로 물을 마셔도 효과가 없는 것이다. 人蔘은 生津止渴하고 益氣하여 氣旺津生하므로 津液이 정상적으로 輸布되어 口渴이 없어진다. 또한 四逆加入蔘湯은 四逆의 惡寒脈微而複利, 利止하는 것을 치료한다. 泄瀉가 그치는 것은 陰液이 內竭되었기 때문이므로 人蔘을 加하여 救陰하는 뜻이다.

人蔘의 다른 작용은 益氣하여 補虛하는 것이다. 예로 〈金?要略〉의 人蔘湯은 人蔘 · 白朮 각 9g, 乾薑 · 炙甘草 각 6g을 水煎하여 2번으로 나누어 복용하는 것으로, 中氣不足으로 인한 胸痺를 치료하는데, 胸悶, 胸痛, 倦怠乏力, 納?食少 등과 같은 증상이다. 이는 氣虛血瘀에 속

하는 것으로 益氣法으로 胸痺를 치료하는 先例이다. 다른 처방으로 理中丸이 있다. <傷寒論>중에서 溫中祛寒, 健脾益氣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脾胃虛寒으로 吐瀉腹痛, 喜溫喜按, 口不渴, 或 泛吐清涎, 四肢不溫, 舌淡苔白, 脈沈遲 或 細弱에 쓰이며, 현재에도 脾胃虛寒을 치료하는 대표처방이 된다. 그 외에 炙甘草湯, 乾薑黃芩黃連人蔘湯, 厚朴生薑半夏甘草人蔘湯, 半夏瀉心湯, 吳茱萸湯 등의 처방 중에 人蔘은 모두 益氣補虛를 위한 것이고 이로써 扶正祛邪하는 의미가 있다.

2) 魏晉南北朝時代

魏晉南北朝時代에 이르러 陶弘景의 <名醫別錄>에서는 人蔘을 “療腸胃中冷, 心腹鼓痛, 胸脇逆滿, 亂吐逆, 調中, 止消渴, 通血脈, 破堅積, 令人不忘”한다 하였다.

임상 응용된 것으로 <後備急方>의 葛氏治卒乾嘔不息方은 人蔘 · 甘草 각 9g, 生薑 18g을 水煎하여 2번으로 나누어 복용하는데, 여기서 乾嘔不息은 곧 脾胃虛寒하기 때문이다. 처방에서 人蔘은 補虛하고 甘草는 和中하고 生薑은 溫中止嘔하며, 함께 사용하면 補虛溫中止嘔의 효능이 있다. 이는 <傷寒論>의 吳茱萸湯을 변형시킨 것이다.

이외에 <後備急方>중에 治卒上氣喘息欲絕方은 人蔘 단미만을 가루내어 약 1g 정도를 하루에 5-6번 복용하는데, 喘息欲絕은 대개 大汗淋?가 있으니, 이는 元氣가 脫

하려는 危急한 證候이다. 처방에서 人蔘만을 사용하여 大補元氣하며 固脫한다. 이는 “獨蔘散”이라고도 하는데 後世의 獨蔘湯의 원형이고, 人蔘을 救急에 사용한 효시가 되었다.

그 외에 최초의 外科 專門書인 <劉涓子鬼遺方>에서 人蔘을 外科瘡瘍에 사용하여 癰疽氣血不足을 치료하였는데, 예를 들면 黃?湯은 黃? 15g, 人蔘 芍藥 當歸 乾地黃 茯苓 白朮 각 9g, 遠志 炙甘草 生薑 각 6g, 大棗 5개를 水煎하여 2번으로 나누어 복용하여, 癰疽內虛를 치료한다. 처방 중의 黃?는 “瘡家聖藥”으로 稱하여지고, 人蔘과 相須로 함께 사용하면, 補氣托瘡生肌의 효능이 있으며, 當歸, 芍藥, 地黃 등을 配伍하여 養陰補血하므로, 癰疽氣血不足內虛에게 적합하다. 이밖에도 治癰內補하는 黃?湯, 發背와 發乳를 치료하는 兼味竹葉湯 등이 있으며, 처방 중에 人蔘은 역시 益氣生血 補虛托瘡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실제로 外科에서 瘡瘍內托法의 先例가 되었다.

3) 唐代

唐代에 이르러서는 人蔘에 대한 부단한 연구를 통하여 臨床應用이 확대되었다.

<藥性論>에서 人蔘을 “主五臟不足, 五勞七傷, 虛損瘦弱, 吐逆不下食, 止?亂煩悶嘔?, 補五臟六腑, 保中守神”, “消胸中痰, 主脾胃吐膿及癩疾, 冷氣上逆, 傷寒不下食, 凡虛

而多夢紛?者加之.”라 하였다. 李珣이 역시 人蔘은 “止煩躁”한다 하였다.

이 시기에는 人蔘을 補心氣, 寧神益智하는데 사용한 처방서가 많아졌다. 예로 孫思邈의 <備急千金要方>의 定志丸은 人蔘과 茯苓 菖蒲 遠志 동량을 가루내고, 煉蜜로 梧桐子크기로 丸을 만들어, 한 번에 7丸을 하루에 3번 복용하는데, “心氣不足, 五臟不足, 甚者憂愁悲傷, ??喜忘”을 치료한다. 처방 중의 人蔘은 補心氣, 安心神하고, 茯苓은 寧心安神, 菖蒲 遠志는 化痰開竅 寧神한다. 本方은 氣虛痰擾, 心悸失眠, 健忘 등에 사용한다. 이 책의 人蔘丸, 大定心湯 등 心虛驚悸, 恍惚不安을 치료하는 처방에서 人蔘은 모두 補心氣, 安心身을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千金翼方>에서는 人蔘 茯苓 각 9g, 茯神 12g, 芍藥 當歸 桂心 甘草 각 6g, 生薑 24g, 大棗 5개를 水煎服하여 “產後忽苦心冲悸, 或意志不定, 恍惚忽忽, 言語錯謬, 屬心虛所致”者를 치료한다. 처방 중에 人蔘은 產後之虛를 補하며, 또 寧神益智하여 一藥二用이 된다.

4) 宋代

宋代에는 출판문화의 번성과 함께 醫藥學에도 비교적 큰 발전이 있었으며, 人蔘의 응용도 날로 확대되었다. <日華子諸家本草>에서는 人蔘을 “調中治氣, 消息開胃”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 시기의 人蔘은 脾胃虛弱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방제가 아주 많이 출현하였다.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는 많은 유효한 방제를 수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四君子湯은 人蔘 炙甘草 茯苓 白朮 各等分을 가루내어 한 번에 15g을 水煎服하는데, 이 처방은 益氣補中, 健脾養胃하는 효능이 있어, 脾胃虛弱으로 運化失司하여 面色萎白, 肢體倦怠, 不思飲食, 或大便溏瀉, 脈弱無力 等症을 치료한다. 처방 중에 人蔘 白朮은 補脾益氣하고, 茯苓은 佐藥으로 濕健脾하고, 炙甘草는 甘緩和中하며, 合用하면 益氣補中의 효능이 있다. 이 처방은 <金要略> 人蔘湯의 변방으로 仲景의 補中之意를 잃지 않고, 후세의 補益脾胃의 기본 처방이 되었다. 補脾益氣의 대표적인 처방으로, 五味異功散 六君子湯 七味白朮散 등은 모두 이 처방의 가미이다.

또 蔘?白朮散은 人蔘 白朮 白茯苓 炙甘草 山藥 各 1,000g과 白扁豆 薑汁浸炒 750g, 蓮子肉 薏苡仁 縮砂仁 炒桔梗 各 500g을 가루내어 한 번에 6g을 棗湯으로 調下하는데, 健脾益氣, 和胃?濕하는 효능이 있어 脾胃氣虛하면서 挾濕者에게 사용한다. 처방 중 人蔘은 補益氣하며 祛濕을 돕는다.

그 외에 人蔘敗毒散은 柴胡 人蔘 桔梗 川芎 茯苓 枳殼(麥炒) 前胡 羌活 獨活 各등분을 가루내어, 한 번에 15g을 生薑 薄荷를 조금 넣어서 끓인 물로 복용하는데, 益氣解表,

散風祛濕하는 효능이 있어, 傷寒時氣, 頭項強痛, 壯熱惡寒, 身體煩痛 및 寒壅咳嗽, 鼻塞聲重, 風痰頭痛, 嘔?寒熱 등을 치료한다. 처방 중에 人蔘은 益氣扶正하고 祛邪하며, 이는 益氣解表의 代表方이다. 人蔘의 益氣하는 효능이 능히 체력을 증강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蘇頌의 <圖經本草>에서는 “使異人同走, 一人含人蔘, 一空白, 各走奔三, 五里許, 其不含人蔘者, 必大喘, 含者其息子如.”라고 기재하였다. 일찌기 宋代에 이러한 실험이 있었으니, 매우 대단한 일이다.

5) 金元代

金元時期에 이르러, 人蔘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이 더욱 깊어졌다. 張元素의 <珍珠囊>에서는 人蔘을 “養血, 補胃氣, 瀉心火”한다고 하였고, <醫學啓源>에서는 “治脾胃陽氣不足及肺氣促, 短氣少氣, 補中緩中, 瀉肺·脾·爲中火邪, 止渴生津液.”이라 하였다. <主治秘要>에서는 “補元氣, 止瀉, 生津液.”이라 하였고, 李?는 “人蔘能補肺中之氣, 肺氣旺則四臟之氣皆旺, 肺主諸氣故也. 仲景以人蔘爲補血者, 皆血不自生, 須得生陽氣之藥乃生, 陽生則陰長, 血乃旺矣. 若陰虛單補血, 血無由而生, 無陽故也.” “人蔘得黃?, 人蔘, 乃甘溫除大熱, 瀉陰火, 補元氣, 又爲瘡家聖藥.”이라 하였다. <湯液本草>에서는 “人蔘味既甘溫, 調中益氣, 則補肺之陽, 泄肺之陰也, 藥便言補肺, 而不論陰陽寒熱,

何氣不足則誤矣.”라 하였다.

임상응용에서 광범위하게 脾肺氣虛症에 쓰인 것 외에 葛可久가 만든 獨蔘湯에는 人蔘 60g, 棗湯煎服하여 “止血後, 以此藥補之”. 하였다. 大失血後 元氣大虛에 人蔘一味를 重用하여 大補元氣하여 “血脫者, 當益其氣”한 것이다. 補氣로서 生血하니, 이는 후세에 獨蔘湯으로 補氣固脫, 救急扶危하는 좋은 방도를 알려준 것이다. 후세사람들이 蔘附湯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다.

人蔘을 만약 附子와 함께 사용하면 益氣回陽, 固脫의 효능이 더욱 강해진다. <婦人良方>의 蔘附湯은 人蔘 30g, ?附子 15g에 生薑 2片, 大棗 3개를 水煎하여 천천히 복용하는데, 回陽 益氣 固脫의 효능이 뛰어나다. 元氣大虧, 陽氣暴脫하여 手足厥冷, 汗出, 呼吸微弱, 脈微 등의 증상에 사용한다. 처방 중의 人蔘은 大補元氣하여 이로써 固後天之本하며 重在固氣하고, 附子は 溫壯元陽하여 이로써 固先天之本하며 重在回陽하므로, 두 약을 함께 사용하면 相補相成하여 약효가 신속하여 위급한 병증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처방이 된다.

그 외에 補氣하는 처방으로는 이 책에 六君子湯(人蔘 白朮 茯苓 各 9g, 陳皮 半夏 炙甘草 各 6g, 加生薑 3片 大棗 5枚, 水煎服)이 있는데, 脾肺氣虛에 兼痰濕者에게 사용한다. 즉 咳嗽氣短, 淡白清稀, 倦怠乏力, 或有嘔吐, 食慾不振 등의 증상에 사용하는데, 처방 중에 人蔘

은 大補脾肺之氣하고, 白朮 茯苓과 배오하여 健脾祛濕하여 “生痰之源”을 없애며, 陳皮 半夏는 燥濕化痰하고, 薑棗는 和脾胃하고, 甘草는 調和諸藥한다. 이러한 약들을 함께 사용하면 健脾補肺, 燥濕化痰의 효능이 있게 된다.

다른 예로 歸脾湯(炙黃? 15g, 人蔘 炒白朮 茯苓 龍眼肉 當歸 각 9g, 酸棗仁 12g, 遠志 木香 炙甘草 각 6g, 生薑 2片, 大棗 4개를 水煎하여 2번으로 나누어 복용함.)의 효능은 健脾養心, 益氣補血한다. 思慮過度 및 勞傷心脾로 氣血不足에 이르러 面色萎黃, 體倦食少, 心悸??, 健忘失眠, 多夢易驚, 或有發熱, 舌淡苔白, 脈細弱하거나 婦女的 月經이 너무 빠르면서 양이 많고 色淡하거나 淋?不止하여 崩漏가 된 자에게 사용한다. 처방 중에 人蔘은 益氣生血하고 寧神益智의 효능이 있어 主藥이 된다.

李東垣의 <內外傷辨感論>에서는 生脈散이 있는데 人蔘 12g, 麥冬 五味子 9g을 배오하여 水煎服한다. 益氣斂汗, 養陰生津의 효능이 있다. 熱傷氣陰, 肢體倦怠, 氣短口渴, 汗出不止, 脈虛弱, 或久咳傷肺, 氣陰兩傷, 乾咳短氣, 自汗者를 치료한다. 처방 중에 人蔘은 益氣生津하고, 麥門冬을 配合하면 養陰清熱하여 生津하고, 五味子は 益氣生津斂汗한다. 세 약을 함께 사용하면 補하고 清하고 斂하니, 益氣養陰生津止渴 固表止汗의 효능이 있다.

그 외에 <濟生方>의 人蔘胡桃湯은 人蔘 6g, 胡桃(取肉) 5개, 生薑 5片을 水煎하여 자기 전에 복용한다. 補肺腎 止喘嗽의 효능이 있어, 肺腎兩虛하고 胸滿喘急하여 누워 잘 수 없을 때 사용한다.

<衛生寶鑑>에 人蔘蛤?散은 蛤? 한 쌍, 杏仁 炙甘草 각 150g, 知母 桑白皮 人蔘 茯苓 貝母 각 60g을 가루내어, 한 번에 6g씩 茶水에 타서 매일 3번 복용한다. 補肺清熱 化痰定喘의 효능이 있어, 久病으로 쇠약하고 겸하여 肺熱氣喘하는 병증에 사용한다.

<仁齋直指方>의 玉壺丸은 人蔘 花粉 동량을 가루내어 梧桐子 크기의 丸으로 만들어, 한 번에 30丸씩 麥門冬煎湯으로 복용하는데, 益氣生津, 清熱止渴의 효능이 있어, 消渴로 引飲을 그칠 수 없는 데 쓴다.

6) 明代

明代에 이르러 補益藥의 이용이 광범위하여 지고, 여러 본초학자는 人蔘에 대하여 종합적인 설명을 하였다. 李時珍의 <本草綱目>에서는 人蔘은 “治男婦一切虛症, 發熱自汗, 眩暈頭痛, 反胃吐食, ??, 滑瀉久痢, 小便頻數, 淋瀝, 勞倦內傷, 中風, 中暑, 痺痺, 吐血, 嗽血, 下血, 血淋, 血崩, 胎前產後祭屏”이라 하였다. 繆希雍의 <本草經疏>에는 “人蔘能回陽氣于垂絕, 却虛邪于俄頃. 其主治也, 則補五臟. 蓋臟雖有五, 以言乎生氣之流通則一也, 益真

氣, 則五臟皆補矣.”, “真氣內虛, 故腸胃中冷, 氣旺陽回則不冷矣. ……謂中者, 脾治中焦, 脾得補則中自調矣. 消渴者, 津液不足之候也, 氣回則津液生, 津液生則渴自止矣. 通血脈者, 血不自行, 氣壯則行, 故通血脈.”이라 하였다. 繆氏는 人蔘에 대하여 다방면의 효능을 歸結하여 益真氣元氣라 하였는데 매우 타당하다. 倪朱謨의 <本草?言>에서는 “人蔘, 補氣生血, 助精養神之藥也. 固真氣衰弱, 短促氣虛, 以此補之, 如營衛空虛, 用之可治也. 驚悸??, 健忘恍惚, 二次寧之, 元神不足, 虛羸乏力, 二次培之, 如中氣衰陷, 用之可升也. 又若汗下過多, 精液失守, 用之可以生津而止渴, 脾胃衰弱, 飲食感常, 或吐或嘔, 用之可以和中而健脾, 小兒痘瘡, 灰白倒陷, 用之可以起痘而行漿. 婦人產理失順, 用力過度, 用之可以益氣而達產, 若久病元虛, 六脈空大者, 吐血過多, 面色萎白者, ?痢日久, 精神萎鈍者, 中熱傷暑, 汗竭神疲者, 血崩潰亂, 身寒脈微者, 內傷傷寒, 邪實心虛者, 風虛眼黑, 旋暈卒徒者, 皆可用也.”이라 하였다. 張景岳의 <本草正>에는 “人蔘, 氣虛血虛俱能補, 陽氣虛竭者, 此能回之于無何有之鄉, 陰血崩潰者, 此能障之于已決裂之後. 惟其氣壯而不辛, 所以能固氣, 惟其味甘而純正, 所以能補血”. “而血分之所以不可缺者, 而未有氣不至而血能自至者也. 故扁鵲曰, 損其肺者益其氣, 須用人蔘以益之. 肺氣既旺, 余

臟之氣皆旺矣。所以人蔘之性多主于氣，而凡臟腑之有氣者，皆能補之。”

이 時期에 人蔘은 임상 각과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었으며, 人蔘을 사용한 새로운 방제들이 많이 나타났다. <證治準繩·女科>의 溫中散은 人蔘 白朮 當歸 草豆? 乾薑 各 30g, 製厚朴 45g을 粗末하여, 한 번에 15g을 水煎服하는데, 産後吐瀉不止를 치료한다. 이 처방은 仲景의 理中丸의 변방이다.

明代의 醫家 張介賓은 溫補를善用하였는데, 人蔘의 응용에 있어 새로운 수준에 이르러 人蔘을 위주로 유명한 처방들을 많이 만들어 냈다. 獨蔘湯의 응용에 있어서도 새롭고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景岳全書·古方八陣>의 獨蔘湯은 人蔘 60g을 水煎하여 頓服하는데 이미 “諸氣虛，氣脫，……凡諸虛症垂危者”를 치료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葛氏의 <十藥神書>의 獨蔘湯이 단지 失血後에 사용한 것에 비교하여, “以此藥補之”라 하여 固脫과 挽救垂危하는데 사용하였으니 이는 크게 진전된 것이다. 景岳은 또한 人蔘과 仲景의 四逆湯을 배합하여 四味回陽飲을 만들었는데, 人蔘을重用하여 30-60g을 사용하고 制附子?薑 各 6-9g, 炙甘草 3-6g을 配伍하여 水煎服하는 것으로, 元陽虛脫, 惡寒肢冷, 氣息微弱, 冷汗如油 등을 치료한다. 또 舉元煎은 人蔘 6g, 炙黃? 15g, 炒白朮 9g, 炒升麻 炙甘草 各 6g을 水煎服하는데, 升陽舉

陷하는 효능으로 氣虛下陷, 血崩血脫, 亡陽垂危症을 치료한다. 또 胎元飲은 人蔘 6g, 當歸 杜仲 芍藥 各 9g, 熟地黃 12g, 白朮 6, 炙甘草 陳皮 各 3g(無滯者不用)을 水煎하여 食遠服하거나, 혹 격일로 또는 2-3일에 한번씩 복용한다. 補氣養血 固胎의 효능이 있어 婦人氣虛胎元不固 등을 치료한다. 이러한 처방들에서의 人蔘은 그 補氣固脫하는 효능 외에 元氣大虛와 各種 氣虛의 증상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였다.

7) 清代

人蔘의 응용은 明代와 비교하면, 크게 뒤진다. 그 원인은 첫째, 黨參의 출현 후에 일반적인 氣虛의 輕症에는 黨參을 代用하였고, 둘째, 人蔘으로 誤補하면 殺人하거나, 誤用하면 病情이 더욱 심하여 지므로 가버히 쓰지 않게 되었다. 張?의 <本草逢原>에서는 “從仲景至今, 明賢方西, 無不用人蔘, 下位今日醫家屏絕不用. 殊不知誤用人蔘殺人者, 皆是與黃?·白朮·乾薑·當歸·肉桂·附子同行溫補之誤所致, 不與羌·獨·柴·前·芍·半·枳·桔等同行汗和之法所致也. 又痘疹不宜輕用人蔘者, 青乾黑陷, 血熱毒盛也. 若氣虛頂陷, 色白, 皮薄, 泄瀉, 漿清, 必用也.”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새로운 방제들이 많이 나왔다. 陳士鐸의 <辨證錄>의 去來湯은 人蔘 茯? 蒼朮 各 9g, 白朮

15g, 川烏 甘草 各 6g, 半夏 3g을 水煎服하는 것으로, 氣虛하고 微感寒濕之邪하여 邪沖心包, 心痛忽作忽止, 一日十數遍, 飲食無碍, 晝夜不安 등을 치료한다. 이는 仲景의 <金?要略>의 人蔘湯으로 胸痺를 치료하는 것을 본받아, 人蔘湯을 가감한 變方이다.

또한 程鍾齡의 <醫學心悟>의 安神定志丸은 人蔘 茯? 茯神 遠志 各 30g, 石菖蒲 龍齒 各 15g을 가루내고, 煉蜜로 梧子大의 丸을 만들고, 朱砂가루로 爲衣하여 한 번에 9g을 복용하는데, 驚恐不安, 睡臥不寧, 夢中驚跳?? 등을 치료한다.

<傳青主女科>의 固氣湯은 人蔘 30g, 炒白朮 熟地黃 各 15g, 酒當歸 杜仲炭 各 9g, 茯? 山茱萸 各 6g, 甘草 遠志 各 3g, 炒五味子 10粒을 水煎服하는데, 少婦懷孕三月을 治療하며, 行房不慎으로 血崩胎墮에 이른 것을 치료하고, 아울러 氣虛崩漏를 치료한다. 方中에 人蔘은 益元氣, 固胎止崩한다. 또 이 책에 補氣升陽湯은 人蔘 黃? 當歸(酒洗) 各 30g, 炒白朮 15g, 川芎(酒洗) 升麻 各 6g, 水煎服하는데 産婦脫肛을 치료한다.

<醫學衷中參西錄>의 蔘麥湯은 人蔘 白芍 炒牛蒡子 各 9g, 麥門冬 12g, 山藥 18g, 清半夏 炒蘇子 各 6g, 甘草 5g을 水煎服하는데 陰分虧損이 오래되고 肺虛有痰, 咳嗽勞喘, 或兼勞?者를 치료한다.